

아시아문화개발원 28일 개원

광주 무등빌딩…문화콘텐츠 제작·유통 전담
원장에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초대 관장

아시아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전담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오는 28일 개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 그리고 국립 아시아문화전

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아시아문화

개발원(이하 개발원)을 오는 28일

개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술극장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공연 감독은 현재 국제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2012년 2월경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개발원 원장에는 백남준아트센터 초대 관장을 역임한 이영철(사진) 계원대 교수가 임명됐다.

추진단은 개발원과 함께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예술 감독 선

임자업에도着手했다.

한편, 개발원은 이번 개원을 앞두고 문화예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으로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3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며, 2012년 1월 중순경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총행기자 redplane@

뉴스 브리핑

광주시 '시민과 대화' 만족도 ↑

강운태 광주시장이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시민과 대화'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큰 폭 상승했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6점 상승한 73.8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응대 만족도는 1점 상승한 78.1점을 기록했다. /총행기자 redplane@

'김정일 사망' 비상근무 해제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 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관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올해 30개에서 내년에는 35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신규 가입품목은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이다.

또 시범 품목으로 나주, 고흥, 해남, 영암, 영광 등 도내 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벼는 본 사업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김자기자 dok2000@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 타당성 없다"

KDI 분석…차질 불가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년 전 내놓은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뒤엎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의뢰한 'J프로젝트 부동지구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의 최종 보고회에서 부동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경제

성이 1.0 이하로 예측돼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비교적 낮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비율(B/C)이 1.0 미만일 때는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KDI는 지난 10월에도 중간보고서를 통해 높은 도시조성비와 관광수요 등을 통해 사업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남도 및 개발시행사에 부동지구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사전 절차로 KDI의 사업 타당성 검증을 요구한 만큼 이번 용역 결과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커

졌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전남도가 지난 2년 전인 2009년 11월 국토연구원의 '타당성이 있다'는 부동지구 개발계획 용역 결과만 믿고 재검증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km²(429만평)에 걸프장·워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지방의회 5곳 중 1곳 내년 의정비 인상

평균 3.8%…합평 9.1% 최고

전국 지방의회 5곳 중 1곳꼴로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의회 244곳 중 광주시와 충남도 등 54곳(22.1%)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3.8%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190곳

(77.9%)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내년도에 의정비를 5215만원으로 245만원(4.9%), 광주시는 4960만원으로 105만원(2.2%) 인상 기로 했다.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방의회는 합평군으로 올해보다 9.1%(264만원) 오른 3162만원으로 책정했고, 강원 철원군이 3144만원으로 7.8%(228만원), 충남 공주시가 3360만원으로 7.7%(240만원) 인상된다.

이어 대구 수성구(6.9%), 충남 계룡시(6.2%), 강원 양구군(6.2%), 경북 예천군(5.8%), 장흥군(5.6%) 순이다. 전남도와 인천시, 대전시, 전북도, 대구시 등 지방의회 50곳은 4년째 동결했다.

지방의원은 본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일자 2008년 주민 여론 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자기자 dok2000@

F1경주장 이용료 받는다…하루 최대 3600만원

전남도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일반인도 사용 가능

앞으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사용하는데 최대 3600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모터스포츠 대회를 치르는데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는 F1 서킷(5.615km)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400만(주

중)~3600만원(주말), 상설트랙(3.045km)은 1800만(주중)~2700만원(주말)으로 책정됐다. 또 기업들이 신차 발표회 등을 위해 F1 서킷을 사용할 경우 1200만(주중)~1800만(주

말)을 내야 한다.

특히 조례안에는 '스포츠주행권'을 마련, 경주장 이용규칙 및 모터스포츠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서킷 라이선스를 획득한 경우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3만5000원으로 25분동안 서킷을 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지원하는 경기는 다른 경기에 우선해 경주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의회, F1대회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전남도의회 F1(포뮬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5일 양영복(무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F1 대회가 국가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결의문에서 "F1 대회는 영암, 전남뿐만 아니라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F1대회가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까

지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F1 대회 운영비의 경우 F1대회 지원법에 따른 지원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른 국제대회 지원 사례에 비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2차례 영암에서 열린 F1 대회의 성과를 감안, 적극적인 대회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준영 지사 해군 3함대 격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23일 전남도에 주둔하며 항토방위와 치안활동, 남해안에서 비상경계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제3함대를 방문, 이범림 사령관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뒤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수산물 수출 33% 증가…전복 1위

전남도는 올해 수산물 수출 실적이 지난달 말까지 1억260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0만 달러)에 비해 33% 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 실적 1억 달러는 지난해

해의 경우 12월 말에 기록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2개월 빠른 10월 말에 달성했다. 수산물 중 전복과 미역, 김 등 3가지 품목의 점유율이 62%를 차지하면서 수산물 수출 상승

의 견인차 구실을 담당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올해 348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2401만 달러)에 비해 45.2%나 늘면서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 /김자기자 dok2000@

본사 인사

▲趙成洙·충부취재본부 학운주재 차장 (12월 26일자)

경매특자

- ◆ 경매 배우실 분
-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주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 무조회 기록시스템 · 개인별 정부관련 청탁자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 2백만~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율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 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내부 제 642호)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주기대출 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시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 -80%+a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내부 제 540호)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한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내부 제 540호)

상가 임대

(구)그랜드 호텔

구시청
사거리

먹자
타운

황금동
의류타운

시내 중심상가 (모든업종가능)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